

농장에서 겪는 법률문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정무식 변호사

1989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8 수원지방법검찰청 검사
2000 대전지검 공주지청 검사
2001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2003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2006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
2009 법무법인 조은 구성원 변호사
현 재 법무법인 원, 대한양계협회 자문변호사

양 제업을 하다보면 유통상인들과의 마찰이 나, 주민들의 민원문제, 거래처 또는 회사와의 계약문제 등 크고 작은 마찰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농가들은 법률자문이나 상담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그 방법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고민이 생겼을 때 쉽게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25일 있었던 2010년도 정기총회에서 본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정무식 변호사(법무법인 원)를 만나 농가들이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쉽게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정무식 변호사는 1998년 검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하여 10년간 검사생활을 했다. 고향은 경북 예천. 지금도 버스가 하루에 한 대 들어가는 작은 마을이다. 그래서였을까. 정 변호사는 어린 시절부터 농업에 대한 애착을 가졌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98년 수원지방법검찰청에서 검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농수산분야를 전담하면서 축산농가 단속도 많이 다녔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정 변호사의 축산에 대한 애정이 시작됐다.

영세농가들로 인해 축산에 대한 고민 깊어졌다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축산농가 단속에 대한 검사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정무식 변호사가 처음 꺼낸 말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분노를 무단으로 처리하는 농가들을 단속하면서 만난 영세농가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다. 사정이 어렵다보니 이렇다 할 분노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해 단속대상이 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라고 하여 ‘한 번 봐주는’ 처분을 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단속이 되면 기소유예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메겨야했던 것. 그는 당시에 영세농가들을 대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밝혔다.

물론 그 때는 환경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했던 탓도 있는데, 지금은 세월이 흐르면서 소비자들도 친환경을 많이 찾게 됨에 따라, 농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고 그는 전했다.

법률문제는 법률전문가 집단 ‘법무법인 원’으로

정무식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원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이태운 전 서울고등법원장,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이훈규 전 인천지검장 등 쟁쟁한 법조인들을 축으로 하여 변호사 7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원을 통해 어떤 분야의 분쟁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농가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통상 구두계약을 하는 탓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명확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급적

이런 거래에 있어서 계약서를 꼭 작성하도록 권하고 있다. 또, 분쟁발생 때문이 아니더라도 축사의 신축과 같은 큰 일을 앞두고는 미리 한번쯤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이를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마련이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전에 문제될 것이 없는지 체크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정무식 변호사는 농가들이 법률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주저없이 상담을 받을 것을 권했다. 이메일이나 전화, 또는 사전에 약속을 잡고 방문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양계농가들이 상담을 원할 경우 상담비용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선임에까지 이르게 되면 별도의 상담료 없이 선임료도 더욱 저렴하게 선임할 수 있다.

각자의 ‘전문가’ 역할에 최선을 다 해야

정무식 변호사는 평소에 양계산물을 좋아하고 있고, 두 딸도 닭고기와 계란을 매우 좋아한다고 한다. 그는 양계인들의 노력이 있어서 국민 모두가 안전한 양계산물을 먹을 수 있다며, 농가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양계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양계인들도 축산의 전문가로써 국민건강과 보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축산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가들의 힘은 ‘잘 묻치는 것’이라며, 협회를 중심으로 잘 단결하면 양계업을 영위하는 농가들의 삶도 더 윤택해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그는 잊지 않았다.

전화 02-3019-2167 jms3794@one21.co.kr

(취재 | 김수영 기자, kyunyang@gmail.com)

